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22호 1판 (음력 7월 13일)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태풍 '솔릭' 오늘 상륙…광주·전남 초비상

초속 43m 강풍·시간당 50㎜ 폭우 동반… 지자체 비상근무
하늘길·바닷길 모두 막히고 어선 피항… 일부 초중고 휴교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오전 전남 진도 서쪽 해상 60㎞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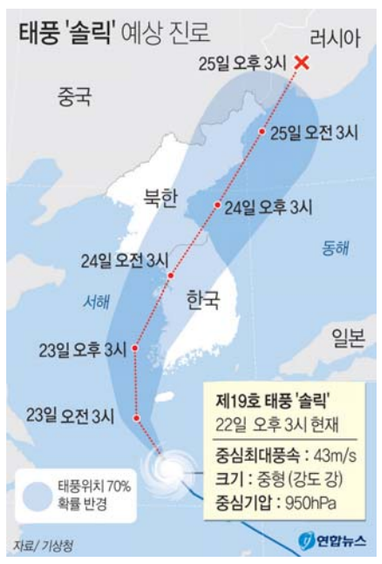
중심기압 950hPa(헥토파스칼)의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은 초속 43m 강풍과 시간당 50㎜의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는 2012년 광주·전남에 큰 피해를 줬던 '볼라벤'에 버금가는 세력이다. 특히 '솔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해 상을 따라 북상하고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반원'(동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피해 대비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60여개교도 휴업에 들어간다.

◇광주·전남 전 지역 태풍 특보 발령=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8시를 기해 흑산도와 홍도, 서해남부먼바다(영광·진도·신안)에는 태풍경보가 발령됐으며, 밤 9시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령됐다.

23일 새벽부터 광주·전남 모든 지역이 태풍 위험반원에 들어 육상에서는 최대순간풍속 30~40m/s, 일부 해안과 산지에는 5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지리산과 일부 남해안은 시간당 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비는 24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태풍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22일 오후 8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태풍 '솔릭'은 24일 새벽 3시 서울 남쪽 30㎞ 부근 육상, 24일 오후 3시 속초 북북동쪽 140㎞ 해상을 거쳐 한반도를 빠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으로 24일까지 전남 전 해상에 5~8m의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해안은 해일에 의한 해수범람이 우려된다.

◇지자체 비상근무 돌입=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산사태 위험지, 급경사지, 해안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요령도 농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고수온에 시달렸던 양식 시설에서는 여름에 설치한 차광막을 일제히 철거했다. 전남도는 이날 22개 시·군에 재해위험시설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천년대교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목포 북항에서 선박 피항 사항을 점검했다.

◇하늘·바닷길 모두 막혀=이날 밤 태풍 영향권에 접어든 전남에서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고 바닷길도 막혔다. 여객선은 전남지역 53개 항로 94척이 전면 통제됐다. 어선 2만6709척도 피항을 마쳤다. 해수욕장 55곳과 국립공원 출입도 금지됐다.

항공편도 이날 오후부터 모두 결항됐으며, 23일에도 운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도해·한려해상·지리산·덕유산 등 8개 국립공원과 탐방로 250곳 출입은 통제됐다.

◇학교 휴업, 공기업도 비상=태풍 솔릭에 대비해 광주·전남 60개 초·중·고교가 23일 휴업한다. 태풍 상황에 따라 휴업, 단축수업,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광주 8개, 전남 51개 학교가 23일 휴업을 결정했다. 광주에서는 정암초, 진남초, 학강초, 유안초, 진제초, 조대여중이 휴업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곡성 고달초, 해남 두륜중, 순천 승주중 등이 휴업하며 추가로 11개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늦추거나 당긴다.

농어촌공사, 한전 등 공기업들도 해당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갖췄다.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도 비상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박정욱·김형호·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풍에 거세지는 파도 태풍 제19호 '솔릭' 북상으로 태풍경보가 발효 된 2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제주신보 고봉수 기자

"정부 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며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특활비를 격려금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채 의원의 비판에 "제가 주로 쓰는 것은 그런 것인데 많이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성민 '어머니 막내가 왔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참여 북한 미술품 설치

▶ 관련기사 16면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7조원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세제 혜택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방지

당정은 22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 온라인 판매 업자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한 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시켰다. 당정은 이날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키로 합의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 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 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 신보보증금을 2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에서 5000억원 증대된 2조원으로 늘린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